

Robert Vannoy , **구약 역사, 강의 6**

## 창세기 1 장 “날들” [욘] - 해석 이론

복습: 욘 [일]

가. 용법 1. 구약성서의 일반적인 용법 2. 창세기 1장 틀에서의 용법

우리는 히브리어 단어 “ 욘 ” 즉 날 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 이는 귀하의 수업 개요 2페이지 상단에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그 단어를 (a)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 나는 두 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일반적인 용법과 창세기 1장의 틀에서의 용법. 창세기 1장의 틀. 우리 자신의 방향을 빨리 바꾸기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창세기 1장에는 욘( *yom*) 을 태양일보다 창조 활동의 기간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리키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 내 견해입니다 . 내가 언급한 것들 중에서 그 단어는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으며, 다른 곳에서도 그런 종류의 의미와 용법이 창세기 1장 내에서 그런 종류의 견해를 허용합니다.

둘째, 넷째 날이 되어서야 조명이 일정 시간 동안 사용됩니다. 따라서 넷째 날이 되어서야 태양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그것에 대한 논의에서 빛의 원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셋째, 창세기 1장의 구조에서 “날” 을 일정 기간, 즉 태양일 대신에 비유적인 명칭으로 취한다면 “저녁과 아침” 이라는 표현을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 기간의 시작과 끝.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여기가 우리가 멈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섯째 날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동산에 두시고, 동산 경작하는 일을 맡기시고, 동물을 사람에게로 데려오시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동물-우리는 2장과 1장의 정보를 결합하여 이를 연습합니다. 그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일치하는 동물을 찾지 못했고 자신과 창조된 동물 사이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야 이제 마침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제 질문은 , 그 모든 것이 태양일 24시간의 빛의 기간 내에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가 단순히 태양일보다 더 긴 기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거기서 멈췄다. 창세기 2:23에서 NIV 단어가 “그 사람이 이르되 지금이니라”라는 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시간이 끝날 무렵에 언급한 것 같은데 , 이 말은 “지금은 길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RSV에는 “마침내 이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요 여자라 부르리라.”

1. 일곱째 날의 길이는 긴 기간이다 나는 창세기 1장의 *욘* ( *yom* )  
또는 “날” 의 용법에 대한 논의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다 .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쉬셨던 일곱째 날은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하루(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것임)이고 나에게  
그것이 다른 6일과 긴 기간과 평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을 때, 그 때 창조 활동을 그치셨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오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식 기간이  
계속된다는 사실은 태양일 24시간 동안만 휴식을 취했다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는 창작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했다. 그는 자신의 창작  
활동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의 본문 자체에서 끌어내려는 결론은 창세기 1  
장에는 “날” 또는 *욘* 이라는 단어가 불확정적인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기간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나는 이 장에서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짧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정보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 그것은 불확실한 길이의 기간임을 시사합니다.

나는 이 구절에 대한 히브리어가 그것과 관련이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거기에서 내가 내린 결론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 일을 마치고 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텍스트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태양일로 이루어진 24시간 연속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쉬셨다는 뜻입니까? 24시간만이였다가 다시 시작했나요? 내가 보기엔 그가 6일간의 창작 활동을 마친 후 창작을 멈추고 휴식을 취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신학적으로 온갖 종류의 함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관련하여 창조론과 변환론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까? 특별한 창작 행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까? 이제 그러한 질문 중 상당수는 복잡하고 세속 신학에서는 매우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요점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근거한 태양일 논증. 20 비유 이것 의 대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다루겠습니다. 24시간의 태양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과 6일 동안 일하고 1일은 쉬는 비유를 호소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곱째 날의 비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태양일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점에서 그분을 본받는 것이므로 그분은 태양일 동안 쉬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비유가 6 + 1 순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태양일 체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의견 허용

(학생 질문). 물론, 나는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욘*이라는 단어가 24시간의 태양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뒷받침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 나는 당신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의견과 결론의 차이를 허용해야 하는 영역에서 이 전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쪽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텍스트의 제약이 무엇인지, 당신은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내가 내린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면 됩니다.

비. 창세기 1장 당시의 주요 견해 유형 b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 “창세기 1장 시대의 주요 견해”입니다. 이제 개요를 살펴보면 토론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아래에는 두 개의 하위 포인트가 있습니다. 1)은 “실제 날짜”이고 2)는 “비실제 날짜”입니다. 이제 그 용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실제 일수”와 “비실제 일수”에 대해 말할 때 태양일과 기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요 시트를 다시 살펴보면 “실제 날짜” 아래에 24시간 태양일 보기가 있고 불확실한 길이 보기 기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실제 날짜입니다. 실체가 아닌 일별 보기와 다릅니다. 이제 실체가 아닌 일별 보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두 하위 지점을 통해 실제 일별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논의하기 전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낮”의 길이에 대한 관점      우리는 기간과 24시간의 태양일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 인간, 우주에 대해 살펴본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나는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가 불확실한 시간의 길이라는 의미에서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그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토론에 모든 것을 휩쓸어 그 중요성을 관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 실제 날짜에 대한 3가지 접근 방식     실제 날짜, 먼저 24시간 태양일 보기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3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는 연속된 24시간의 7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창세기 1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땅이 공허해지고 흑암이 지면을 덮은 창세기 1장 2절의 동사 “되다”에 근거한 회복 또는 간격 이론은, 6일간의 창조는 실제로는 원래의 창조가 아니라 재구성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였더라”에서 최초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6일간의 재구성 기간이 있으며, 이 관점에 따른 화석을 포함한 모든 지질학적 기록은 창세기 1장 2절 이전의 시대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의 6일 동안 재정렬, 구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론을 고수하는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날에 대한 24시간의 6일 이해를 고수합니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기간 간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시대 사이에 오랜 기간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질학적 기록이 창세기 1장의 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급된 날은 24시간 태양일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섞여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견해 - 기간 간 견해 - Dr. 뉴먼은 *창세기 1장과 지구의 기원의 변형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매우 유용한 책이므로, 언젠가 한번쯤은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의 참고문헌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이 지점 아래가 아니라 페이지의 마지막 항목 옆에 있는 6페이지에 제가 언급했어야 했지만 언급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RJ Snow, Echeleman의 저서, *창세기 1장의 지구의 기원* , *InterVarsity Press, 1977* 의 "6일은 얼마나 됩니까?" 부록 3. RJ Snow의 기사는 우리가 방금 언급한 여섯째 날에 관한 흥미롭고 유용한 기사입니다. 몇분 전. 그것은 뉴먼 박사의 책입니다. 그는 하루가 24시간이고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새로운 창조적 기간을 열어준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오랜 시간의 시간으로 보지 않고, 오랜 시간의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기간 간 이론의 일부 형태이지만 하루가 24



시간으로 유지됩니다.

바노이의 입장

내 생각에 그것과의 차이점은, 나 자신이 이 장의 날의 구조에 24시간의 날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특히 그 날 4 때문에 태양이 24시간이라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까지 달은 날을 측량할 위치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일차, 2일차, 3일차는 어땠나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태양일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이것이 우리가 논쟁에 너무 얽혀서 그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져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본문이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한다고 생각한다.

비. 24시간 태양일 위치      좋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24시간 날짜 보기입니다. 나는 창세기 1장의 맥락에서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 가능한 대안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24시간 태양일 견해를 지지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 의미에서 *욘(yom)* 또는 *하루(day)*라는 단어는 태양일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며, 확실히

당신이 한 장에 와서 그것을 읽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초기 이해일 것입니다. 간격 이론은 두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니라” 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기 창조를 한 다음 격변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이어지는 6일은 혼란스러운 상태가 재구성되는 연속 24시간의 6일이 될 것입니다. 지질학적 시간은 창세기 1:1과 1:2 사이의 간격으로 밀려납니다.

세 번째 관점에서 지질학적 시간은 6일의 구조에 있지만 6일 이전에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 6일 사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욥* 의 주요 의미는 태양일이었습니다. 둘째, 저녁과 아침이라는 문구는 그 결론을 강화합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분명한 초기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과 아침은 태양일을 말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있던 이해는 그것에 대한 비유적인 이해를 요구하며, 그것이 낮-시대 관점을 배제할 정도의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녁과 아침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몇 분 전에 제가 언급한 출애굽기 20:9-11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9-11에서 우리가 옛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리니 이는 하나님이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 출애굽기 20:9-11과의 비유에 대한 논증은 날이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20장의 두 구절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그것은 24시간의 태양일을 지지하는 논증입니다.

씨. 하루-시대 이론

비. 실제 날짜의 시트에는 *욘*을 불확실한 길이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Day-Age 보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 논의했고, 나는 이에 찬성하는 주장을 펼쳤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확실한 길이의 기간이더라도 실제 “날” 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여전히 실제 기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들을 행하신 기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론은 종종 이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키려는 시도에서 채택된 견해가 아닙니까? 그게 이유가 아닌가? 그런 견해는 진화론과 성경을 조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채택된 견해가 아닌가? 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매우 강력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과 성경의 관계에 대한 논평

그 일반적인 영역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

첫째, 과학에 대한 적대감과 이 발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반계몽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잘 정립된 과학적 사실과 실제로 근거가 없거나 철학적으로 편향된 다양한 과학 이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을 해야 합니다. 과학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과학 연구 결과를 무시하거나 이에 대해 적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현실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많은 것들은 오류가 많습니다. 우리는 유효한 것과 유효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과학에 대한 적대감을 피하고 차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 우리는 성경의 진술 중 일부를 특정 이론에 맞게 왜곡하거나 강요함으로써 과학 이론과 성경 사이의 일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나는 우리가 항상 그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때로는 과학적 발견이 특정 성경 본문을 재검토하여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텍스트가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다시 보고 처음에 보았던 것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텍스트 자체가 어떤 매개변수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자극이나 동기가 되는 것은 과학적 조사와 결론입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러분 대부분이 Francis Schaeffer의 *Space and Time*의 창세기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책의 57페이지에서 그는 창세기 1장의 날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나는 그의 논의를 많이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의 결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에서 '날'로 표시된 정확한 기간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즉, 그는 어떤 식으로든 세계 내려오지 않습니다. 태양일 또는 기간 보기.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단어를 어느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단어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연대 측정 문제에 관한 과학의 최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쟁할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Schaeffer의 경우 과학 자료가 그로 하여금 본문을 다시 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본문을 비틀거나 왜곡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이나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텍스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학에 대한 적대감을 피하고, 성경의 진술을 이론에 맞추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반면에, 과학적 발견이 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본문을 재검토하고 성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도록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한다.

2. 비 실제 일수 2. 창세기 1 장의 일, 연도, 일의 종류에 따른 숫자는 실제가 아닌 일수입니다. 실제가 아닌 날은 무엇입니까?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시대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순서나 과정 사이에 실질적인 역사적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일 것입니다. 이제 실제가 아닌 일별 보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1. 상징적 또는 논리적 순서일 첫 번째 작은 것(a)은 오리게네스의 견해입니다. 오리겐은 서기 185-253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교회 교부였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의 시대를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창조가 한 순간에 이루어졌으며 6일은 단지 논리적인 순서를 나타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리겐은 “해와 달과 별이 없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저녁과 아침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선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넷째 날의 문제로 돌아가서 그는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는 한 순간에 이루어졌으며 6일은 단지 논리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제가 방금 당신의 참고문헌에서 나눠준 7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항목인 Origen, *On First Principles*, Harper and Row 1966, 288페이지에서 그가 그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초기 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실제적이지 않은 하루의 관점 중 하나입니다.

비. “낮”에 대한 어거스틴의 우화적 견해      어거스틴은 또한 실제적이지 않은 낮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우화적인 관점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 관한 그의 진술 중 일부가 그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리버 버스웰 (Oliver Buswell)의 조직 신학(*Systematic Theology*) 1권 7페이지 상단에 142~144페이지의 첫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그는 창조 시대에 어거스틴에 대해 논하고 어거스틴의 신의 도시(*City of God*) 11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 그는 “지금 어떤 날인지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극도로 어렵거나 어쩌면 불가능한 날이고, 얼마나 더 말할 것이 없는지”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찬양과 사랑으로 돌아올 때, 즉 자기 자신을 아는 가운데 그렇게 할 때

, 그것이 첫째 날입니다. 위의 물과 아래로 땅 사이에 있는 하늘의 이름인 궁창을 아는 날이니라. 그리고 땅과 바다와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셋째 날이니라. 그리고 크고 작은 광명체와 모든 별을 알게 되는 날이 넷째 날이니라.” 기타 등등. Buswell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성경 구절에서 창조주를 찬양하고 사랑하기 위해 돌아오는 피조물의 영적 경험을 언급하기 위해 “날”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창조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는 문법적 또는 역사적 해석학의 표준과 규칙으로 어거스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석에 있어서 우화적인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우리는 5세기 교회의 위대한 아버지이자 아마도 사도 이후 가장 심오한 신학자라는 점만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성서에 충실한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다소 공상적인 방식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창세기 창조 기록의 날을 해석했습니다.” 일종의 우화적인 시대관인 것 같다. 그 날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역사적 순서와 관련하여 실체가 아닌 날입니다 .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응답하는 신자의 영적 경험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씨. 계시일 실제 날짜가 아닌 세 번째 범주는 계시일 관점입니다.



이것은 c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날 모습. 7페이지 중간에 있는 참고 문헌에 DJ Wiseman, *Clues to Creation in Genesis part 2, Creation Revealed in Six Days*가 있습니다. DJ Wiseman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일 만에 창조를 계시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날들은 창조의 시기를 나타내는 태양일이나 연대일이 아니라 계시의 시기를 나타내는 태양일이다. 6일 만에 나타난 창조물이었습니다. 나는 창세기 1장에서 그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 활동의 6일 동안 행하신 일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창조 활동 측면에서 그가 실제로 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분명히 창조의 날에 관한 비실제적 견해이다.

이제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인 1977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학과 성경의 조화인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특정한 순서가 있다면, 그것을 과학자들이 순서에 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다양한 생명체의 창조와 관련하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시퀀스를 제거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4. 기본 가설: 문학적 장치로서의 '일' 다음으로 언급할 견해는 비실제적 시각으로 비실제적 시각을 고수하는 현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해입니다. 하루 종류의 보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프레임워크 가설 또는 이중 대칭 관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마도 영어 저술에서 이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옹호자는 NH Ridderbos 일 것입니다. 이는 7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항목입니다. 그의 작은 책, “Is There a Conflict Between Genesis 1 and Natural Science,” Eerdmans, 1957. 그것은 네덜란드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책 . 그는 나중에 1963년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더 광범위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내가 네덜란드어로 나열했지만 영어로 번역된 적은 없습니다.

리더보스 (Ridderbos) 의 견해에 따르면 창세기 1장의 7일은 창조 이야기가 설정되는 문학적 틀, 즉 틀 가설입니다. 이는 창조 서사가 설정되는 문학적 틀입니다. 그 관점에서 그 날은 문학적 장치이지 연대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순수하고 단순한 문학적 장치일 뿐이며, 연대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닌 날이고, 실제로 일어난 날이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를 전달하는 문학적 틀입니다. 리더보스 (Ridderbos) 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6일은 분명히 2개의 삼중체 , 즉 3개의 두 세트에 이루어진 집합으로 의도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분명히 뚜렷한 평행성을 드러내는 반면, 전체 배열은 탁월한 영광을 담대하게 표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안식일에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이루는

사람의 이야기. 창조 이야기의 이러한 계획을 통해 우리는 저자가 의식적으로 낮과 밤, 저녁과 아침을 문학적 틀로 사용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작가의 작업 방식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창작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순서는 작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작가에게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가 질서정연하다는 생각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1-3일과 4-6일의 병행 이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 3일과 두 번째 3일 사이의 평행점을 그렸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고, 넷째 날에는 빛을 전달하는 태양, 달, 별이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고 위와 아래로 물이 나뉘는 것이 있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가 있느니라. 평행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아마도 거기에서 볼 수 있거나 아마도 문제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육지가 바다와 풀과 분리되어 있고, 땅에 거민이 있으니,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짐승이 있느니라. 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곱째 날인 안식일로 이어지며, 안식일에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밀어붙이겠습니다. 처음 3일에는 4개, 두 번째 3일에는 4개 등 총 8개의 창작 활동이 있습니다. 즉,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각각 2개씩 먹습니다. 그러한 창조적인 행위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는 문구로 소개됩니다. 해당 장을 아래로 내려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는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고 하셨습니다. 첫날에 한 번 먹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그날이 둘째 날이에요. 9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셋째 날에 나오는데, 11절에는 셋째 날에 두 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9절과 11절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것이 다섯째 날이고, 24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고 26절은 여섯째 날에 두 개를 얻습니다. 따라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각각 2개씩, 총 8개를 얻습니다. 따라서 장에 대한 그런 종류의 도식적 구조를 통해 여기에 있는 것은 창조 이야기를 구조화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날은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날이 아니며, 그 날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제시하는 작가의 문학적 장치입니다.

버스웰은 그의 『조직신학』 제1권에서 이 견해를 논한다. 143 페이지에서 그는 Ridderbos 의 책을 언급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각각 3일로 구성된 두 그룹 사이의 대칭성은 나에게서는 구름 속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 얼굴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를 지적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의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한 사람이 구름 속의 얼굴로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동물이나 나무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사람이 자신의 시각을 어느 정도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다른 패턴으로 동일한 구름 형성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1-4일, 2-5일, 3-6일 사이에 어떤 평행성을 의도했는지 전혀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선 날짜가 일치한다면 3일과 5일이 6일과 일치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즉, 평행법을 찾으려면 바다와 분리된 마른 땅과 땅의 주민인 동물과 사람보다 물고기와 새가 더 많이 있는 식물을 봅니다. 그리고 평행성은 3과 6 사이보다 5와 3 사이에서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평행성을 볼 수 없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 의도된 평행법을 본다고 보거나 상상하는 것은 확실히 이단이 아닙니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창조 6일 동안 주장된 이중 평행성이 어떤 식으로든 차례대로 열거된 사건의 순서에 걸쳐 주제를 지운다는 추론입니다.” 즉, 그가 반대하는 것은 순서의 개념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날들을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학적 장치로 여긴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서 순서의 장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Ridderbos 의 요점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 제목이 “창세기 1장과 자연 과학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까?”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정된 갈등을 피하는 방법은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순서든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해당 장에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 과학적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무언가를 해당 장에 강요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이중 대칭 관점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견해에 중요해 보이는 몇 가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점점 더 복음주의자들이 이 견해를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ustin Holt가 작성  
 함 대략적인 편집: Ted Hildebrandt  
 최종 편집: Rachel Ashley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